

이사장 신년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조 상 현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회원님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제가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에 취임한지 어느덧 1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지난 1972 년 창립된 이래 4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학회원들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2015 년에 World Allergy Congress 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학회로 위상을 높였고, AAIR 를 국제적 알레르기 학술지로 자리매김하는 등 그간의 성과는 매우 자랑스럽고 타 학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 년이면 우리 학회가 창립한지 45 년이 되는 해로서 이제 중년의 대열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안주하기에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들이 너무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 기후와 환경변화로 인해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식품알레르기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난치성 노인 천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이 국민보건에 차지하는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보건의료정책에서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에 비하여 순위가 한참 밀려있습니다.

둘째, 최근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이 증명하듯 학문과 과학기술의 영역은 넓어짐을 지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학과 임상면역학이 이전의 방법에만 머물러 있거나 창조적으로 타학문과 다른 학회와 폭넓게 교류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레르기 학문을 보다 다양화하고 국내 유관학회, 외국과 국제 학회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주제와 방향으로 교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5 년 전에 창립하였던 우리 학회가 작은 모임에서 이제는 엄청난 규모와 실력을 뽐내는 학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회원들의 구성이 다양화되었고 신입 회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세대간의 소통을 이루고 젊은 구성원들의 비전과 희망을 담아내야 하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에 발맞추어 준비하였던 “비전 선포식”의 핵심가치와 전략과제를 일 년 동안 각 부서 상임이사들과 함께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남은 1 년 동안 천식과 알레르기질환의 대표학회로서 홍보도 많이 하고 각종 의료정책에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어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회원들간의 소통에 힘써서 더욱 발전하는 학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밝아오는 2017 년 정유년(丁酉年)에는 항상 좋은 일들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조상헌